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료	1734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월 26일 금요일	Issue No.	1734
		Date	Mar. 14, 1969: Fri.

아폴로 9호 착수를 바하마 군도 부근으로 변경

(유-스은 3월 12일 밤, 에이 피) 아폴로 9호의 착수지점은, 마도가 심한 버뮤다군도근처를 피하고, 약 5백마일 떨어진 바하마군도 (영자지명)의 구렛나르-크도부근으로 변경되었다. 착수예정 시간은, 미동부표준시 13일 오후영시 1분 (하와이시간으로 오전 7시 1분), 회수선 가달카나호는 새로운 예정지를향해서 급히 가고있으며, 착수예정시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예정이다. 아폴로 9호는 이번경에따라서, 약 1시간 40분 걸려서 지구를 1회, 여분으로 돈다. 발사시에는 감기로 얻기 되었고, 돌아올때에는 천기때문에 시간이 늦는등, 우주선의 시간표도 일삼적인 일로 변경되고있다. 변경을 통지받은 페데이빗선장은, 신착수지의 천기예보가 조라고 언락, "그럼 그쪽으로감시다" 라고 말하고 원기가 총망하였다. 우주에서의 최후의 1일, 비행사들은 사진 촬영과 장치의 시험을하면서, 귀환에 대비하고있다.

불란서의 총동맹파업 온순히 종료 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경고

(파리 3월 12일 밤, 공동) 10일 밤으로부터 시작한 불란서의 24시간 총동맹파업은 거의 예정대로, 파리를 위시하여 전국적으로 파업을 지냈다. 작년의 5월 위기에도 스키안헛든 천기, 7개스도 파업에 들어갔는데, 지하철도는 원천정지를 하지안헛고, 우편국도 각지구의 중앙국에는 일단 국원이 나타나서 일을 하였다. 국민의 감정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일은한다는 모양이었다. 이파업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주는것이 목적이아니고, 정부 경영자에대한 "경고"와 노조측의 단결의 효과를 노린것이라는것이 확실하다. 영화관과 극장 그리고 술집은 비때문에 더 성황하고, 파업과 조른 대조적인 모양을 보였다.

금가려 저하, 임금인상 4%를 정부고집

(파리 3월 12일 밤, 에이 피) 노조측의 반포에의하면 파업과 시위에는 6만으로부터 10만인의 노동자가 참가하였다고 추정되고있다. 단불거리에는 청년들이 경관과 충돌, 약 230명이 체포되었다. 시위대의 일원이 병원에 수용되고, 경관 12명도 부상을 입었다. 두수술정보상은 12일 각의후에 "파업이 뚝나자마자, 정부는 경영자와 노조측과 적극적으로 회의할 의사이다. 그러나 임금은 4%이상은 인정할수없다" 라고 말하였다. 노조의 임금인상요구는 10%까지 12%이다. 또 슈맨사외문제상은 "파업의 영향은 민간기업보다 국영기업측이 훨씬 컸다" 라고 말하였다. (제 2면에 계속)

(제 1편으로부터 계속)

민주 불탄서의 불탄에대한 집착으로 슬타가고잇은 급가적은, 무마미장과의에서 입피이 때미 지기시라아였다.

의식적으로 정치위기를 강조한 드골 연설

(파리 12월밤 공동) 중동맹타임은 배경으로한 드골대통령은 11일밤 국영방송을 통하여 소신을 표명하였다. 예상대로 당면한 노동불안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경제문제로서가 아니고, 정치 문제로보고 국민에게 드골지지를 호소하였다. 연설의 모양은 작년 5월30일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5 국민투표불안에한 후정서언이며, 의식적으로 긴장을 확대함으로써, 사태를 유리하게 인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나타나고잇었다. "5월의 때와 마찬가지로 적어, 같은 공범과와같이, 무책임한 같은 방법으로 총화와 경제와 공화국을 위협하고있다" 라고 탄탄 표현이 그것이다.

비에트남 전쟁에서 적의 포격 감소

(사이곤 3월11일밤, 에이피) 공산군의 포격은반은것은 남비에트남 20개소로, 전일의 60개소에 비교하여 11일에는 훨씬줄고, 손해도 경미하였는데, 미국측에서는, 아직 포격에 참가하지 않은 수천명의 공산군병력이잇다고 지적, 언제 다음의 포격이 올른지도모르고, 급구만을 고대하고 있다. 지상전에서는 5개소에서 거행되었는데, 전사자는 해방전선, 북비에트남군 126명, 미군 10명이었다. 고전의 하나는 사이곤 북서 43마일에서 북비에트남군 약4백명이 미군으러50대의 추송부대를 기다리고잇은것인데, 미국의 손해는 중상자가 8명, 탱크를실모잇은 트럭이 한대 파괴되었을 밖으로, 공산군 76명이 살해되었다. 그외에 중앙고지, 사이곤 북동 30마일의 권유지대에서 고전이잇었다. 남비에트남정부의 발표에서는 반정부파의 불고송의 지도자인 직.첵.민 사가 공산군과 정부군도망법을 잡은 죄로 군사재판에걸린다. 동사는 2월23일, 사이곤의 시내의 불고청년고소를 경찰이 수색하였을때에 체포된것이다.

스웨즈 운하에서 발포

(이스라엘 텔아비부 3월12일밤, 에이피) 스웨즈운하연안에서 12일 총격이 조채되고, 또 운단 제국에서도 이스라엘군과 운단군이 발포하였다. 이스라엘군의 발포로는, 죄르 예지르르(하람) 군이 조격, 이스라엘군이 송수하였다고한다. 국영감시단은 죄르의 스웨즈연안에서의 총격전은 모두 예지르르가 총격을 시작하였다고판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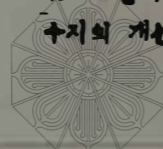
닉슨 대통령, 미사일망문제로 기자회견

(워싱톤 12일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14일아침, 공화, 민주양당의 국회의원들과 회견하고 한동안미사일망문제에대해서 협의하고, 이어 정오경 기자회견을 함 예정이라고한다. 이강마회견의 모양은 전미글에 중계방송된다. 대통령은 그대에 동문제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할것이라고보고있다.

기지문제는 일본인에 맡겨라

(덴사소주 덴벳란 3월11일밤, 공동) 뽀스윙트미상원민주당원내총무는 10일, 덴사소주립대학에서의 강연에서, 재일미군기지물사고, 늘가지고잇는 분쟁은, 일본인에 그의 결정을 마지김으로 해결할수있다고 말하고, 다음피잡이 말하였다.

1. 재일미군기지를 조금이 삭감하는것은, 대부분의 일본인에 환영받을것이며, 또미국의 국제 수지의 개선에도 입이된다. (제3편에 계속)



(제2편으로부터 계속)

- 1. 오끼나와의 조급한 시정 권반환을 위한 명쾌한 남자들 설정할것을 요망한다.
- 1. 오끼나와는 군사적으로보아, 대단히 편리한데, 입서서안되는것은 아니다. 미군은 우선 제1로 재일미군기지의 삭감, 그 사용도의 축소시켜야하며, 제2로 서태평양지역에서의 새로운 중대보다 더 큰 군사적 역량을 일본에 강요하는 노력을 정지하여야한다.

아폴로 9호 무사히 착수
좋은 성과를 거두고 3비행사 건강

(텍사스주휴스튼 3월13일밤, 에이피) 첫 달착륙선의 조업실험을 성공리에 끝내고, 예상이상의 성과를 얻은 미국의 3인승 우주선 아폴로9호는 13일 무사히 착수, 3비행사는 회수선의 공모가달카날호에 올라왔는데, 모두가 다 건강하다. 3비행사는 오늘밤을 함상에서 지내고, 내일 휴스튼시에 돌아갈 예정이다. 이번의 성과는, 전미국민을 기쁘게하고있으며, 닉슨대통령은 즉시 3비행사에 축전을 보냈다.

또 오는 27일에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3비행사를 위한 만찬회를 개최한다.

영국극동함대의 주력 일본 방문
극동전략상의 시위

(동경 3월11일밤, 에이피) 헤리포트 앨비온 (23,300톤), 미사일구축함 톤톤 (5,200톤)을 포함한 영국극동함대의 주력, 18척이 3월말부터 10월에 걸쳐서, 영.일친선을 목적으로, 동경, 요코스가 고배동 일본까지의 17항에온다. 영국함대의 친선방문은 35년부터, 7 내지 8척의 편성으로 매년 잇었는데, 작년에는 17척, 금년에는 18척의 방문으로 급이 증가 "영국이 극동전략상의 지위확보를 도모하고있다" 라고 보고있다. 금년의 방문계획은, 3월28일 우리케이즈함"그레오파트라" (2450톤)이 사세보에 입항, 4월5일까지 9일간 정박하는것을 시작으로, 4월10일부터 24일까지 9척의 함대가 구테, 외가야마, 이와구니, 고베, 요코스가등 9항에 갈머져들어간다. 6월에는 톤톤을 위시하여 6척의 함대가 시미즈, 요코하마, 요코스가, 오오미나토와 북해도의 하코다테, 무로란, 오다쿠의 7항에, 8, 9, 10월에 걸쳐서 2척이 동경항에 들어온다. 입항지에서는 관제 데모 함파의 교환, 함장들의 관계방문등, 일본.영국친선의 모임이잇는데, 18척의 일본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친선방문"이라고하나, 남지나해, 동지나해에서 각종연습을 겸한것으로보고, "영국해군의 극동기지설의 (1971년말) 후에도 계속하여 전략배치할것을 강조하는 시위라고보고있다. ...

미군대공수작전 미국 동부로부터 직접 한국에

(북캐롤라이나주 썸머군기지 14일밤, 공동) 9일 미군공수부대와 공군요원의 약2천5백명을 미국으로부터 직접 한국에 수송한다. 부대가 9일미평, 미.북캐롤라이나를 출발하였다. 우선 전전부대로서의 130수송기 20기가 230명의 병사와 중포, 용진차등의 병기를 싣고 출발, 이어 병사 7백명을 태운 수송기도 한국에 향해 출발하였다. 700명은 약1만3천7백기도를 날라서 31시간후에 한국서울의 남동 63기도의 연습장상공에 도착, 락하산으로 강하한다. 이번의 연습은 최대의 초점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에의 병원, 무기의 직접의 공수작전으로, 미국방공성은 이공수작전을 "역사상최장거리의 공수전작전" 이라고 불르고, "해외에 전략예비를 급속히 배치할 능력을 보인다" 라는것이 목적이라고한다.



킹목사 암살 재판에서 레이에 징역 9+9년

(레네시주 벤뒤스 3월10일밤, 에이미) 마틴.루사.킹 박사를 암살한 제임스.암.레이는 유죄를 인정하고, 레네시주형무소에서 징역 99년의 판결을받았다. 레이는 "킹박사에대한 암살의 음모는 없었다. 규정에따라서 유죄를 인정한다" 라고 말하였다.

레네시주에서는, 사형의 가능성이있을때에는 최후까지 5명의 증인이 증언을하는것이 필요하기때문에, 이날 벤뒤스의 교외 새뮤얼.카일스목사이하 5명이 불려지고, 작년 4월4일, 토레인 모렐에서일어난 킹박사암살사건에대해서 증언하였다. 교인의 부친인 킹.씨니어목사는 조지아주 애크라에서 레이의 유죄승인에대해서 감상을 말하라는 질문을받았는데, "아무 말할것이 없다" 라고 대답하고, 킹박사미망인은 자택에 있었다. 레네시주는 여권의 사형을 요구한다고 말하였는데, 동주의 전기의자는 61년이상은 사용되고있지않다. 배심이 99년의 징역에 동의한것은 확실한데, 이경우 레이는 33년이내에 가출옥의 자격을 얻을지도 모른다.

소련.중공 관계 점점 긴장

(모스크바 3월8일밤, 에이미) 중공.소련국경에서의 충돌에대해서, 모스크바에서는 7일에 이어 8일에도 반중국시위가 있었다. 모택동비난의 깃발을 든 몇천명의 모스크바시민이 중국대사관 앞을 시위행진하였는데, 어제 외갈은 우석의 소동은 없었다. 시위참가자는 10만명이상이라고한다 한편 동경에서드른 북경방송은 "중국육해공군은 전쟁에 대비하고있다. 배반자의 소련수정주의자의 입장이 중국침입을 계속한다면, 중국은 그러한 노력에대해서 사수할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중공.전투준비. 반소시위자 2억6천만

(동경 3월8일밤, 공동) 8일아침의 북경방송은 2일의 중.소 무력충돌사건에대해서 "3일아침으로부터 중국각지에서 현일 일어나고있는 반소시위에 참가한 해방군과 인민의 총수는 7일까지에 2억6천만을 넘었다" 라고 보도하였다. 북경방송은 또 "우리는 이미 철벽의 진을 치고, 일제의 전우준비를 가추고있다. 소련수정주의 배반자집단이 감히 침략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이를 소멸시킨다" 라고 말하고있다. 또 북경방송은 이 반소.시위는 중국에서 여태까지 볼수 없었던 "공전의 규모의 시위" 모서 알려져있다.

유해나여사의 운동

하와이섬 고할라에서 대규모의 김치제조업울하고 계시는 유해나여사가 한국에가시나 하와이에 계시나 여러방면으로 한국계행사와 고아원, 불구자원조등 자선사업에 많은 기부를 하시는데, 이번 한국해군구축함 부산함이 태항하였을시에는, 김치에 굶주린 해군들을위하여 고할라김치를 24케이스나 배에 기부하시고 그외에 장병들에 여러가지 격려와 위로를 하였다고한다.

김활란박사 내항

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동양에서 제일 큰 여자대학으로 이름난 이희대학의 총장으로 수십년을 지낸 김활란박사는 총장의 지위를 인퇴한후 처음으로 세계일주의 길에 나섰는데, 이번 여행의 목적은 미국각지에서 기부들집어, 이희대학의 피폐락과 간호락과의 설비를 충실이하어 세계에서도 부럽지않는 대학을 만들려는것이다. 김활란여사는 지난 12일아침에 미국으로 출발하셨는데, 하와이에 이희대학원칙지크립을 작성하고 기금모집에 힘을 쓰게하였다고한다.

주말 재정보단

년테금	도합	정순이김	10.00	박아지	10.00	한경희	10.00	리귀현	10.00	서복순	10.00
주보대금	도합	정순이김	10.00	박아지	10.00	한경희	10.00	리귀현	10.00	서복순	10.00
적립금	도합	정순이김	2.00	박아지	2.00	한경희	2.00	리귀현	2.00	서복순	2.00

